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이새의 뿌리에서(찬106/새101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이대은 장로 2부/안지호 집사 3부/이길수 장로 4부/이유빈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경배하라(작곡 Lloyd Larson)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시편 62:1-12.....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0:32-45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12월의 시편 묵상(2) 흔들리는 울타리 인생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29) 내 인생의 한 줄 요약!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오직 주만이, 광야를 지나며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임직자, '그대'들을 기대합니다

New Lay Leaders, We Look Forward to 'His Representatio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카타르 월드컵 축구에서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를 완성한 모로코의 자랑스러운 싸움이 끝났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2002년 한국의 4강 신화에 이어, 모로코는 월드컵 축구 역사에 또 하나의 신화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축구연맹 2위인 벨기에를 이기고 16강에 오르더니,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차례로 제압하며 4강에 오른 것입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제국주의 시대에 모로코를 침략한 식민 지배국이었습니다. 또한 4강 대결팀인 프랑스는 이전 월드컵 우승팀이면서 1956년 모로코가 독립국 지위를 되찾기 직전 식민 통치를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한을 푸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모로코의 국가대표(국대)가 아니라, 유럽의 지배 속에 아픈 상처가 있는 아프리카를 대표(아프대)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나라들이 응원하기 시작했고, 미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아프리카계 이민자들도 거리로 뛰쳐나와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의 설움을 안고 살아가던 이들은, 모로코의 거침없는 질주를 응원하며 대리 만족이라도 하듯 모로코의 4강 신화에 열광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모로코 선수 중 무려 14명이 귀화 선수라는 것입니다. 즉,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뼈아픈 과거의 결과로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 그 나라 시민이 되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자기 모국에 돌아와 모국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베델교회에 임직 하는 분들과 모로코의 월드컵 축구팀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출전 선수들이 자기 나라 모로코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이듯, 베델교회에서 세움을 받는 사역장로, 안수집사, 사역 권사들은 베델의 대표 선수로 발탁된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로코 선수들이 '국대'에 머물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선수들로 경기에 임했듯이, 베델의 대표 선수들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대표(그대)하는 선수들로 뛰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임직자들은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손과 발로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교인 대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대표 주자들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세상은 뽑아준 사람들을 대표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대'들을 뽑을 때는 세속적인 네거티브 정치가 배제되어야 하며, 표몰이 등을 선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베델의 임직자들을 그리스도의 대표 주자들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직자들에 대해 거는 기대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을 대표하기보다는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땅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인 이중국적자로서 세상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대'들을 기대합니다.

One thing much talked about in Qatar World Cup is that, “the most unexpected Morocco’s proud fight has ended”. Next to Korea’s legacy of moving into quarter-finals in 2002, many notes that Morocco leaves another legacy in the history of soccer game. They defeated Belgium, who is ranked 2nd in the International Soccer Federation, and moved onto the final 16 teams. Then they moved onto semi-finals after defeating Spain and Portugal respectively. During their imperialism period, both Spain and Portugal have attacked and colonized Morocco. Semi-final’s opposing team, France, is the previous World Cup winner, and country that also colonized them before Morocco regained independence in 1956. These Morocco players fought for their painful past. They fought, not just for their nation, but as athletes representing the whole Africa that has suffered under Europe’s domination. The continent of Africa cheered for them. African immigrants in America came out to streets to cheer for them. Those with sorrows of hard immigrant life cheered for Morocco’s unstoppable run. They all went crazy as the team moved onto semi-finals.

One thing to focus on is that 14 of the Moroccan players joined from other countries to become national players. Another words, they have dual citizenships with roots in Morocco. Painful history of losing their country caused many people to flee to other countries long time ago, and become citizens of those countries. Their younger generation returned with heart for the motherland to represent.

Similarity can be found between our Bethel Church’s newly elected lay leaders and Morocco team at World Cup. Like those athletes representing their country of Morocco, newly elected elders, ordained deacons, and deaconesses are the players that represent Bethel Church. However, Moroccan athletes did not only represent their nation, but were the athletes that represent the whole African continent. Our Bethel players must compete representing Christ. This is an incredible spiritual truth. Church lay leaders do not represent people, but represent Christ as His hand and feet. They don’t represent congregation. They are the representatives of Christ. Following is difference between world and the church. World selects people to be their representatives, but the church represents Christ. Therefore, when we select ‘His Representatives’, we must remove all negative worldly politics and desire to favor votes. Moving forward, we will continue to lift up the new Bethel lay leaders as representatives of Christ. This is the expectation we have for the lay leaders. Instead of representing those who prefer to walk the wider road, we expect them to represent the narrow path of Christ’s heart. Although we may be citizens of this land, with dual citizenship of Heavenly Kingdom, we expect that they will not be swayed to the ways of world. We expect that they will place their foundation on the rock of Christ, and hold the dream of Heavenly Kingdom as ‘His Representatives’.

교사 만찬 후기

눈물로 가슴으로 끌어안으신 선생님~~

저는 초등부에서 8년째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5학년 남학생반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 초등부에 올라와 어리숙하여 쭈뼛거리던 아이들이 어느덧 키와 함께 믿음이 자라, 이제는 여러 부서에서 선생님들과 TA로 섬기는 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의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은 저도 모르게 몸을 굽혀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아이고" 하는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굳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말랑한 찰흙처럼 원하는 대로 빚을 수 있는 순수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교육부 사역자, 선생님, 부모님들의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토기장이(Potter)이신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직접 간섭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Masterpiece)으로 완성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정범 집사(초등부)

좋은 선생님들,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어느덧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많은 아이들, 그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1학년 아이들과 한 해를 보냈던 작년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문답식 대화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대답에 무척이나 놀라기도 했습니다. 2세, 3세들의 신앙이 부모와 조부모의 신앙보다 더 커

져서, 이 세상을 이기며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기도하며,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현숙 권사(K-1)

주일 아침,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영아부실에 들어오면 재미난 그림과 흥미로운 장난감들이 가득합니다. 은혜 충만한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어오는 아이들을 넘치는 사랑과 미소로 맞아 주십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TA들, 귀한 은사로 섬기는 사모님들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팀장님과 이렇게 우리는 환상의 조합이 됩니다. 재미있게 놀다가도 clean up 음악에 맞춰 장난감을 정리하는 아이들이 신이 나서 엉덩이춤을 추며 온몸으로 찬양할 때, 천국이 이 아이들의 것임을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 선생님들도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의 두 눈은 화면을 따라 움직입니다. 혼자서 현금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아이들과 거기에 현금을 넣는 아이들의 모습,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백미영 권사(영아부)

유학생으로 시작한 미국 생활에서의 경험을, 이민 과정을 비슷하게 겪어야 하는 친구들에게 나눔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된 귀한 공동체와의 만남이,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친구와 함께 말씀 묵상으로, 수련회에서의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때로는 단기선교의 현장에서 함께 지내며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큰 은혜로 귀하게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여간, 졸업 앞둔 Senior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삶을 나누며 함께 해 주는 친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성장하고 섬겨가는 모습들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10년이 지나고 보니, 처음 만났던 친구들을 때로는 사역자로 만나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도 보며, 그들과 추억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석승진 집사(CIM 중고등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CIM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CIM은 제가 8학년 때부터 신앙을 배우고 자라온 우리 가족과 같은 공동체인데, 이곳에 다시 교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참 특별합니다. 교사로 섬기게 된 지 약 2년이 되어가는데, 많은 행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CIM에서 찬양팀을 지도하고 있어서인지, 찬양팀 친구들과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찬양팀 친구들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연습하고 성장해 나가며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보람된



교사 만찬 후기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CIM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쓰임 받고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윤지호 성도(CIM 중고등부)

저는 이번 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BYM Jr. High에서 6학년 여학생들의 선생님이로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을 교회 밖에서 1:1로 만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감사하게도 한 학생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BYM Jr. High 학생들 모두가 성령에 눈이 활짝 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예은 성도(BYM 중등부)

느긋함과 게으름을 즐기던 저를 유아부로 이끈 것은 4학년 막내, 솔로몬이었습니다. "나는 왜 남자 동생이 없어요?" "엄마가 πππ 나이가 πππ" "아가들 있는 유아부에서 엄마가 봉사해요. 그러면 내가 엄마 학생들이랑 놀 수 있잖아요?" "엄마 힘들어서 싫어" "제임스 이모는 하잖아요. 엄마, 하세요." 아들이 만든 셀 식구이자 아들의 절친인 제임스 엄마와의 아름다운 경쟁 구도로 유아부에 발을 들인지 5년이 넘는 동안 저는 아들의 바람대로 3세, 4세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어서 유아부 봉사가 싫다고 했던 저는, 멀리서 "정민주"라고 불러주는 멋진 4살 친구, 제가 유아부실에 있어야만 편히 들어오는 새침하고 예쁜 3살 친구, 아이를 두고 못 떠나시는 40세의 귀여운 어머니, 힘들어 지쳐 울고 있을 때 기도해주신 나의 동역자인 예쁜 50세 선생님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러 주신 전도사님의 사랑에 오늘도 2부 예배 후 할렐루야 채플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주일 아침 제 눈을 뜨게 하는 힘은, 이 어린 천사들의 예쁜 눈망울임을 인정합니다. 이 아이들의 눈동자와 언제나 함께하길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민주 집사(유아부)



전도사님의 권유로 우연히 유년부 교사가 된 지 2년 차인 저는 처음에, 의욕이 앞서 실수하는 건 아닐지, 영어로만 진행되는 성경 공부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보니,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넘쳐나는 기쁨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기도로 사역하고, 아이들의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교사로 남고 싶습니다.

조수진 집사(유년부)

소망부를 섬긴 지 어느덧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말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매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아이들이 기억하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단정하게 입혀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로 인해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은혜가 저를 소망부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섬기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입술로 그 말씀을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저희 선생님들은 매주 이 아이들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며, 몸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최 신 권사(소망부)

저는 UCI를 다니며 베델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부터 초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와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초등부와 스페셜 프로그램을 섬기게 되었는데, 돌아보니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몸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증인으로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제가 처음 가르쳤던 학생들은 어느덧 제가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의 나이로 성장하였고, 이제 그들은 교사와 TA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세대가 되도록, 교사들은 본을 보이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다예 성도(초등부)

베델 교육부 사역에 동참한 지 7년이 된 올해, 교사로 섬기며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고등부에서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한 학생들이 영어 예배로 올라가 이들과 함께 예배드린 일입니다. 6학년일 때부터 2022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이들을 섬겨오면서, 언젠가 우리가 함께 같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BYM 청소년 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흘러 가기를 기도합니다.

Johnny Hyun 성도(BYM 고등부)



2023 신임 임직자 명단

2023년 신임 임직자들을 소개합니다. 한분한분 기도과 말씀으로 신실한 주님의 일군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임직예배: 2022년 12월 18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사역장로(5명):

김도석(7796) 김문경(46) 오세영(6172)
정광록(4870) 황세헌(5820)

■ 안수집사(18명):

강정엽(9256) 고스티브(9143) 김도형(10010)
김윤근(9924) 김정범(8481) 김정우(6807)
류정빈(7997) 변진(8925) 윤유진(9100)
이석배(9987) 이우용(8230) 이준혁(6850)
정봉화(9921) 조 룡(9892) 최재호(8106)
허윤호(9018) 황미동(9432) 황인수(9871)

■ 사역권사(25명):

곽영지(5979) 김미연(3067) 김선경(5754)
김성지(3231) 김순희(5225) 김영아(6361)
김진희(5033) 박선희(6917) 박성혜(4870)
박영미(8826) 박정화(9270) 박현선(5122)
박혜성(8804) 송미선(8562) 안경자(6653)
여은희(4700) 원현정(7948) 윤선숙(8435)
장윤정(4422) 장은실(9444) 정영숙(4230)
조윤미(7880) 코바야시지나(6755) 황성희(9432)
황연주(3821)

■ 협동권사(5명):

김선희(8159) 박헌숙(9793) 염선희(10096)
장수잔(42) 조실자(9807)

■ 서리집사(334명)

남자(148명):

강명성(10568) 강지수(5870) 강창구(9394)
강창만(10101) 강창위(10265) 강태웅(9969)
곽태영(10287) 권범석(9175) 김경준(10315)
김삼균(6482) 김상현(10424) 김성준(10213)
김세담(9313) 김수겸(9936) 김영민(10661)
김영일(10411) 김영현(10403) 김우진(4830)
김우찬(8963) 김유삼(10654) 김이석(10446)
김장수(9512) 김재우(10409) 김제이슨(7574)
김종민(10534) 김종철(9657) 김준호(10126)
김지광(10647) 김지만(10448) 김지훈(10495)
김진선(700) 김찬현(8590) 김태연(10518)
김필립(5775) 김학재(10532) 김현민(10405)
김현철(9515) 김형진(10469) 김홍우(10109)
김흥신(10462) 김희운(10346) 나준규(9998)
남양일(10658) 독고훈(9318) 류재영(10470)
류충환(10638) 매 튜(10012) 문송주(10217)

문시중(10076) 문인각(10118) 박다니엘(10487)
박명환(10210) 박문규(9748) 박영재(10435)
박이균(10002) 박재홍(10399) 박준(10476)
박준영(10274) 박준희(10455) 박철용(10067)
박필서(10445) 방인광(10433) 백재열(10529)
서상모(969) 서수형(10307) 서 헌(8970)
석민석(10441) 소병용(9527) 소석현(10527)
송정훈(10457) 신건호(10375) 신재국(9620)
신해동(9843) 심규창(10133) 심재경(10520)
양영수(7942) 양진성(10639) 오규성(10438)
오세종(10491) 오세형(10656) 오희영(5056)
위철민(10673) 유재호(7396) 유주형(10493)
유호승(8297) 육상운(10665) 윤대경(7438)
윤재원(10216) 윤현동(10418) 윤현석(4185)
유희진(10335) 이강우(9607) 이기철(9411)
이노아(10543) 이대희(10592) 이마이클(10564)
이상윤(8176) 이선구(10028) 이에드워드(10338)
이영찬(1342) 이 완(10426) 이요셉(10468)
이인원(10657) 이장한(10432) 이재우(8143)
이정현(10463) 이재현(10255) 이종남(10436)
이종찬(8975) 이창영(1796) 이형길(10439)
임동구(10251) 임병옥(9813) 임성기(9086)
임진수(10437) 임춘우(10486) 장석우(10489)
장우석(10233) 장철순(10290) 장항령(9832)
전민혁(10669) 전석진(9746) 전승재(9450)
전영진(9842) 정규식(9565) 정규환(5120)
정근우(10404) 정저스틴(10553) 정한별(5198)
정희재(9644) 조대흠(9672) 조창형(10004)
진상국(8055) 채영석(9604) 최병욱(10627)
최재환(10324) 최형기(9576) 한준범(9719)
함필중(8689) 허광주(10620) 호한규(10614)
홍경호(7961) 홍석균(7734) 홍석준(6767)
홍성용(10667) 홍정희(10484) 홍현기(19668)

여자(186명):

강영희(10101) 강은미(9151) 강인식(4525)
강혜윤(10265) 고현주(8742) 권계방(9134)
권미경(9173) 권지혜(10627) 권지희(10423)
김경숙(8963) 김경희(10484) 김나영(10592)
김남희(9086) 김담희(9576) 김문숙(10182)
김미선(9889) 김미연(9657) 김민정(10213)
김보미(10450) 김성혜(10059) 김소연(10463)
김소영(10600) 김순희(10495) 김안숙(9512)
김양희(10439) 김예지(10432) 김유나(10399)
김윤선(10408) 김은아(10210) 김은영(10470)
김인숙(9297) 김재연(10469) 김정림(9251)
김정아(10462) 김정은(10181) 김주희(10418)
김지영(5195) 김지영(8585) 김진숙(10479)
김현주(5029) 김혜숙(9600) 김희진(10307)
남수연(9616) 남우영(10658) 도소영(7942)

독고경진(9318) 문은수(10117) 박귀조(9527)
박나진(8143) 박민정(10476) 박세은(10028)
박소희(10346) 박신희(9539) 박에스더(10002)
박영자(4875) 박영희(8494) 박윤희(10067)
박정은(9565) 박정화(10668) 박제니(4830)
박주은(9603) 박진아(10487) 박진영(9497)
배수현(9842) 백혜인(10669) 서연옥(7943)
서혜원(10459) 서화원(9672) 소선희(10527)
손여림(10652) 송미선(10457) 송예량(10605)
송유경(10656) 송정숙(10636) 송종문(10119)
신미정(10424) 신미화(10170) 신수정(10441)
신정연(7961) 심현정(8590) 안민수(10324)
안현정(9607) 양승경(916) 오유리(10529)
오은주(10667) 왕사라(9594) 우경진(10619)
원미정(10411) 원지예(8500) 유선미(5198)
유승아(10518) 유재순(10404) 육수지(10665)
윤세정(10424) 윤지혜(10481) 윤희정(10654)
이강숙(9101) 이경아(9562) 이경은(10647)
이경희(10544) 이교은(9620) 이마야(10591)
이말순(6640) 이마옥(10389) 이민선(10216)
이상미(8176) 이상예(7924) 이선영(10534)
이수지(10564) 이수진(10392) 이승현(10639)
이승혜(10437) 이애나(8414) 이앤마리(10442)
이영애(7714) 이윤경(10435) 이은지(10448)
이인희(10255) 이자인(10468) 이정민(8055)
이정희(7068) 이정희(9394) 이주연(10228)
이주현(7983) 이지성(10492) 이지수(10251)
이지연(10528) 이지영(10403) 이진아(10290)
이창희(9832) 이채린(10586) 이해라(10427)
이혜수(10493) 임선영(10455) 임지현(10568)
임필레(9813) 임행자(9982) 임혜순(10369)
장두희(9796) 장신애(10426) 장에스더(10451)
장윤희(10491) 장자윤(10543) 장정란(9029)
전우영(9644) 전인숙(9450) 전자학(7854)
전찬미(10483) 정미영(10077) 정보영(10496)
정유진(10126) 정은희(5120) 정혜진(6039)
조가영(10066) 조멜리사(10553) 조성미(8671)
조은진(10315) 조재옥(10004) 조준영(10335)
조혜선(9403) 주영희(8297) 주은미(10409)
채은진(9604) 최 선(10233) 최성숙(10486)
최윤경(10604) 최은주(10514) 최정이(10133)
최지연(8583) 최지혜(8689) 츠나오코(10387)
하이안(6692) 한보라(10638) 한영혜(8874)
한유미(10405) 한정훈(10433) 한필영(10429)
허다솜(10620) 호영희(10614) 흥단비(10657)
홍선태(7734) 홍정화(10472) 흥캐서린(6767)
황자영(10661) 황지영(10504)
NAOKO STAVREV(9386)

교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성탄 뮤지컬

'내 삶 속의 마구간' 들여다보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오신 마구간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초라한 곳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라하고 부끄러운 곳, 나도 외면하고 싶은, 꼭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 뮤지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마구간을 찾으려 하니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뮤지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정에 대한 배경으로 스토리가 그려집니다. 겉으로 볼 땐 한없이 평화롭게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루하루가 갈등의 연속인 평범한 크리스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과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위에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와 가족이 함께 관람한다면 더욱 큰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뮤지컬은 베델워십 팀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극본과 음악, 그리고 안무 등 모든 부분을 아직은 시작하는 첫걸음이지만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기에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1부 뮤지컬에 이어서 2부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하는 찬양 집회가 이어집니다. 성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동방 박사들처럼 향기로운 찬양의 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뮤지컬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꼭 오셔서 참여하시어 그 옛날,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박경철 목사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1월)	12/25:	①부-여흥평	②부-윤영걸	③부-박소울	
	1/1:	①부-박원규	②부-이선갑	③부-김병인	④부-김도윤
	1/8:	①부-이석희	②부-백영만	③부-김태현	④부-김에스더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2,1월) | 12/24: 이성호 12/31: 이승호 1/7: 이영복 1/14: 이원배

강단꽃(12,1월) | 12/18: 한태성 12/25: 박중현, 윤주원 1/1: 류재영, 허광훈 1/8: 김성희, 김인권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근웅(정형외과) 간호사-오선희 다음주 | 의사-장미순(한외과) 간호사-홍정이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성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성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눈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수요 예배 및 주중 새벽 기도회 장소 안내** 조명 공사가 완료되어 다시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저녁 7시에 youtube로 방영됩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는 화-금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 **임직 예배** 연말 제직회와 교인총회를 통하여 선출 된 2023년 신입임직자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8일(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설교: 박영배 목사(뉴라이프 선교교회 담임목사)

◆ **베델 창작 뮤지컬**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베델 창작 뮤지컬 "내 삶 속의 마구간"을 공연합니다. 이번 뮤지컬에 온가족과 함께 더불어 주위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을 함께 초대하여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순서에 찬양집회가 드리집니다.
일시/장소: 12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본당

◆ **성탄절 베델 사진관 가족 사진** 곳곳에 흩어졌던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탄감사예배를 드리고, 베델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12월 25일(주일) 예배 후, 코트야드 포토 부스

◆ **성탄 감사 예배** 2022년 성탄 감사 예배는 주일 1부, 2부, 3부(예살과 연합예배)에 성탄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감사함으로 2022년을 보내며 기쁨으로 드리는 금년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31일(토) 오후 10시 30분, 본당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감사 헌금과 My one prayer(1년 기도제목)을 드립니다.

◆ **2023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2023년은 하나님이 베델에 주신 특별한 비전 "Always be there"로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엘리야 특별새벽기도에 베델의 온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일시: 2023년 1월 2일(월)-7일(토), 주중 새벽 5시, 토 새벽 5시 30분
강사: 김한요 목사

◆ **MY ONE PRAYER 신청** 2023년 꼭 응답 받기 원하는 한가지 기도제목을 받습니다. 엘새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담당 목장 목회자가 기도할 것입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와 카톡 채널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12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12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학교 성탄예배** 올해 성탄 예배는 12월 25일(주일) 각부서에서 (2, 3부)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한 예배와 크래프트 등이 준비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교회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 **소망부 토요학교 봉사자 모집** 소망부 토요학교에서 봄학기 토요일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간: 2월 4일(토)부터 12주간 매주 토요일
문의: 김종현 집사 (949)533-4520

◆ **C2C 청소년 힙합 댄스 Workshop** 다양한 워업 중의 하나인 힙합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찬양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1월 6일(금)과 1월 13일(금) 오후 4시-7시
대상: 6-12학년 베델 교인 (2022-2023학년)
등록/등록기간: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12월 11일(주일)-12월 31일(토)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현호승 전도사 (949)677-4911

◆ **한어 중고등부(CIM) 겨울 수련회** Align이란 주제로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CIM 자녀들과 예수님을 더 알고 원하는 중고등부 학생 모두 환영합니다.
기간/장소: 12월 28(수)-30일(금), 베델 갈릴리 수양관
강사: 박경철 목사
등록/문의: CIM 단체 카톡방 구글링크,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베델 콰이어 & 오케스트라 모집 및 안내** 베델교회의 1부 예배를 은혜가운데 섬기는 베델 콰이어 &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1월부터 콰이어 연습시간이 현재 수요일에서 금요일 저녁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더욱 풍성하고 힘있는 콰이어가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근수 장로 (714-734-7858), 김형직 목사(909-964-2537)

◆ **2023년 강단 꽃 봉헌** 2023년도에 예배실 강대상의 꽃을 각 가정의 감사 혹은 추모로 봉헌하실 성도님께서는 교회 사무실에 싸인엽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2023년 달력 배부** 2023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가정은 예배 후, 한 부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 **교역자 동정** 예살 청년부에서 섬기시던 김유미 전도사께서 이번 주일로 사임하시고 새로운 사역의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김재원 성도(김송희 권사의 아들)께서 12월 15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류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Shaky(tottering) Fenced Life (Psalm 62:1-12)

1. Have you heard the phrase "making it hard for yourself"? What is the Psalm writer's current situation?(v.2-3, Ref: 2 Sam 15-17)

2. Genre of today's Psalm is 'lament'. What is the image of psalm writer's assault? And who is the psalm writer shouting out to?(vv.1-4)

3. What is the shaky fence that you are experiencing now? The Psalm writer says, "I will never be shaken". Read the reference verses for reason and share.(v.2-4, Ref: Deut 8:2-3, 2 Cor 1:8-9)

4. In this situation of lament, Psalm writer commands, "pour out your heart"(v.8). What are you suppose to do?(v.5-8, Ref: Ps 127)

5. Psalm writer says that man's futile ways are (), lie, (). Instead, he praises the loving God. Share your experience of God's lovingkindness.(v.9-12)

Apply to Life

